

전쟁 내몰린 가족 생각에...광주고려인 마을 주민들 한숨만

고려인마을 허비올레타, 여동생 루마니아 피신·여동생 남편 전쟁 우크라 출신 고려인 동포 30명 루마니아서 입국 대기...지원 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피난길에 나선 고려인들이 타국에서 고립돼 있다는 소식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전해졌다.

급히 피난길에 나선 탓에 몸만 빠져나온 고려인 여성과 아이들은 인근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있지만 항공비 등 한국 입국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고려인마을에 사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다급한 전화를 받은 피난민의 가족과 고려인마을은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허비올레타(50)씨의 여동생 A(42)씨를 비롯한 자녀 3명 등 총 4명이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에 도착했지만 입국비자와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오넷사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러시

아가 침공하자 남편은 전쟁에 참여했고, A씨는 3명의 자녀(20살·13살·3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 몰도바를 거쳐 간신히 루마니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통에 서둘러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다 보니 '가방 하나뿐 가진 것이 없다'며 광주의 고려인 마을에 살고 있는 언니인 허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허씨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를 비롯한 마을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동생가족이 "조상의 땅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고려인마을은 항공비 지원방안과 조국의 안전한 입국 등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

에 나섰다.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명당 2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이 없어 터키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가족 이외에도 루마니아로 피난길에 올라 고립된 고려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오넷사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최근 국내 입국한 선교사 B씨 역시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고려인마을과 연고를 가진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동포 30여명이 루마니아에 도착해 대한민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무국적자로 고려인 동포임을 입증할 자료조차 없다"고 소식을 전했다.

고려인마을은 이같은 소식을 종합적으로 모아 마을지도자들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려인마을 공동대표 이천영 목사는 "광산구와 기존 모금활동을 해서 1억원 가량을 모았지만, 이는 애초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보내기로 한 기금이라 사용 할 수 없다"면서 "다시 모금 활동을 벌여 항공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만 얼마씩이라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달리던 화물차 불 10일 오후 4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남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가전제품 물류배송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은 자동차 엔진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제보 접수

목격담·암매장·행방불명자 등 진실 규명·희생자·피해자 구제

광주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의 숨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1980년 5월18일 전주 당시 군 관련 당사자의 고백과 증언, 목격담, 피해사태,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제보,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등 5·18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해당된다.

접수된 제보는 기초자료를 보완한 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철저한 검증과 사건조사를 통해 은폐된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문의는 광주시 5·18선양과(062-613-1360·1361)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고제보란에 하면 된다.

정신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시민 제보로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고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진상규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암매장 신고 51건, 행방불명자 신고 14건, 총기 및 헬기 사격 관련 41건, 과잉진압 8건, 성폭력 7건 등 267건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로 제보 내용을 이관했다.

또한,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5·18행방불명자 찾기' 사업을 추진해 182가족 366명의 혈액 정보를 확보하고, 전남대학교 법의학고실에서 유전자 분석해 대조하고 있다. 또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 261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외국인·봄시즌 안심관광지' 전국 최다 선정

관광공사, 고흥 썩섬·신안 퍼플섬·곡성 침실습지 등 13곳

한국관광공사의 '2021-2022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심관광지 125선'에 전남도내 고흥 썩섬, 신안 퍼플섬 등 10개소와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등 3개소 등이 각각 선정됐다.

내외국인 방문 안심관광지 선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관광지다.

'고흥 썩섬'은 전남 1호 민간정원으로 후박나무

와 동백이 유명한 섬이다. 섬에 고양이와 닭과 고양이 조형물도 있어 '고양이의 섬'이라고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섬 자체가 길쭉하게 뻗어 외나로도의 축정항 서남쪽에서 파도를 막고 있어 차분한 호수를 연상케 한다.

'신안 퍼플섬'은 반월도·박지도와 연결하는 다리와 마을을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은 곳이다. '세계질 보라색 꽃 피는 퍼플섬'이란 명성을 가지고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지난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1 한국 관광

의 별로 선정했다.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는 곡성의 생태 경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국가보호습지 제22호로 지정됐다. 희귀 동식물 650여 종이 공존하고 나무데크, 침실목교와 풍종다리를 거치는 습지 트레킹을 하며 멸종위기 수달과 흰꼬리수리, 삿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장흥 선학동마을'은 이경준 소설가의 작품세계와 소설 '선학동 나그네'를 소개하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메밀꽃으로 마을 전체가 물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9개소 선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한 체계적 창업지원 성과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시 동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모에서 동구 사회적경제 창업팀 9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발굴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 팀은 ▲썬에코데이즈(헌 이블 리사이클링) ▲바오파니(일터혁신을 통한 경력단절여성고용) ▲동명문화트래블 협동조합(마을주민 주도 마을여행 서비스) ▲구부야 협동조합(마을주민 주도 주류 제조·판매) ▲치른시빌(청년예술가 향

작활동 지원) ▲다카포스튜디오(인어원단 리사이클링 기념품 제작·판매) ▲민들레(보호종류 아동경제활동 지원) ▲풍선.마마.스토리(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실현) ▲Respect local(친환경 서핑악스 개발) 등 9곳이다.

동구는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창업지원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은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1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다.

동구는 창업팀이 지역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